

元代 八思巴字의 正統性 考察

王玉枝*

<목 차>

- I. 들어가는 글
- II. 漢字의 지속성과 漢語·中國文化
- III. 八思巴字에 대한 客觀的認識과 中國에서의 正統性
- IV. 마치는 글

I. 들어가는 글

문화는 인류의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로, 인류의 공동생활 방식이며, 환경과 생활방식 등 여러 여건에 따라 산출되는 문화 역시 각자의 특색을 가진다. 지금 이 세계에는 각기 다른 수많은 문화가 산출되어 있고, 강대국의 문화는 일정한 범위 속에서 약소국의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외래문화의 영향을 없다하더라도, 시간적·공간적인 변화에 의해 문화 역시 根幹은 변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발전·변화함이 당연한 이치다. 바빌론문화·이집트문화·인도문화는 비록 고대를 찬란하게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이미 歷史의 遺跡이 되어 버렸다. 오로지 中國文化만이 홀로 生存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이와 같이 뿌리 깊은 중국문화가 존재할 수 있었던 여러 잠재적인 힘 가운데 중국문자 즉, 漢字는 중국어인 漢語 그리고 中國文化

* 동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전임강사

의 근원이며, 중추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元代 약 100년 가까이 중국에서도 소리문자가 國字로 통용한 사실에 대해, 부정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전, 이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再檢討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천 년의 중국문화를 지탱해주는 여러 견고하고 뿌리 깊은 요소 중, 源泉의인 意味를 갖는 漢字에 대한 인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八思巴字에 대한 고찰에 앞서 漢字의 中國에서의 持續性을 漢語 그리고 中國文化와 연결시켜 재 조망하였다. 그러나 지속성에 대한 논의인 만큼 漢字의 本質問題인 長短點問題에서 벗어나, 단순히 중국에서의 한자사용이 불가피한 時代的 背景과 中國文化를 中心으로 살펴본 후, 역사적·문학적·음운학적·음운학사적 사실을 통해, 한 때 漢字를 대신하여 國字의 역할을 한 八思巴字에 대한 再糾明과 아울러 중국에서의 正統性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漢字의 지속성과 漢語·中國文化

中國은 古代文明國家의 하나로, 그 傳統文化는 文字·文物·歷史記錄·藝術·哲學·發明 등등 많은 면에 있어, 수천 년에 걸쳐 깊이 있는 文化를 형성시켰다. 따라서 中國歷史上 두 번의 異民族의 統治를 받았지만 중국 전통문화는 지배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민족의 文化를 융화시켜 중국의 文化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였다. 미국 역사학자인 Dr. Lynn Thorndike은

중국문화는 공자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약 수천 년의 세월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전해왔다. 이는 실로 문화사상 절대적인 현상이다. 이 문화는 일찍이 아시아 유목민족의 침략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굳게 홀로 존재하였으니 그 뿌리의 깊음이 가히 알 수 있다.(中華文化自孔子以前傳至今日, 歷數千年而連續無間, 此實爲文化史上絕無僅有之一現象! 此文化曾迭受亞洲游牧民族之摧殘蹂躪, 而猶能巍然獨存, 其根柢之深厚可知矣)¹⁾

고 했다. 그러나 19세기 중국은 아편전쟁(1840-1842)에서 영국에게 참패한 후, 西方帝國主義의 共同 植民地가 되어 不平等條約의 속박 속에서 점차 낙후되어 갔고, 일부 知識分子들은 貧弱한 國勢와 國難이 모두 中國의 傳統文化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여 固有的 傳統文化를 부정하게 비판하는 五四運動(1920년대)이 일어났고, 그중 과격한 자는 中華문화는 옳은 곳이 하나도 없다고 여겼다. 심지어 전쟁이후 지식인들의 자각이 있기 전까지

中華民族의 찬란한 文化遺産으로 간주되고,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漢字를 없애자는 「漢字廢止論」까지 거론하였으며, 「拼音文字」를 채택하지는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중국문자의 拼音化 段階를 시도 하지도 못한 채, 결국은 漢字의 簡化作業을 완성·실행하게 되었다. 錢玄同은 漢字 簡化運動의 提昌者이면서 漢字簡化의 積極적인 實踐家였다. 그는 1918년 “新青年”에서 〈中國今後之文字問題〉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孔學을 없애려면 먼저 漢文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으며 魯迅은 그의 〈門外文談〉이라는 글을 통해 “한자가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면서 尊嚴性和 神秘性이 부여돼 더욱 어렵고 모호해졌다.”고 하였다.²⁾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 성립이후 「中國文字改革協會」를 만들어 문자개혁 및 표준말 보급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1950년 漢字簡化 作業이 이루어졌고, 1951년 毛澤東은

문자개혁이 세계 문자와 같은 拼音의 길로 걸어가야 하나, 拼音化를 실천하기 이전 반드시 먼저 漢字를 簡化시켜야 하며, 목전의 응용에 이롭게 하기 위하여 동시에 拼音化에 대한 각종 연구와 준비를 진행해야한다.(文字改革要走世界文字共同的拼音方向, 但在實現拼音化以前, 首先必須簡化漢字, 以利目前的應用, 同時進行拼音化的各項研究工作和準備工作)³⁾

고 했다. 1956년 ‘漢字簡化方案’을 정식으로 공포하였으며, 1964년 문자개혁위원회에서 ‘簡化字總表’를 공포하였다. 그러나 文化大革命(1966-1976) 초기 鄧拓 등은 漢字簡化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한 후 漢字簡化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숙청했고 언

1) 中華文化復興委員會 등 편, 《中國文字與中國文化論文集》 215쪽 재인용.

2) 홍인표, 《중국의 언어정책》, 81쪽-82쪽 참조

3) 中山大學 中文系, 《語言學概論》 57쪽 인용.

어문제를 다룬 전문서적도 자취를 감추었다. 1972년 중국과학원 원장인 郭沫若은 4월호 「紅旗」에서 언어정책에 대한 최초의 발언을 한 이듬해 光明日報에서 文字改革이 부활했다. 그러나 대중들이 임의로 만든 簡化된 漢字는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 시켰고 林彪 등은 漢語拼音教育을 파괴하려고 했으며, 이에 「批林批孔」이란 비난구호가 나왔다.⁴⁾

文革 이후 어문정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고 과학기술발전에 발맞춰 특히 漢字情報處理技術研究의 발전이 거듭됨에 따라 漢字問題에 관심을 가졌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漢字簡化的 推進與否였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시초는 1978년 반대하는 周有光과 찬성하는 張昭華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이어 ‘繁體字濫用’·‘異體字使用’·‘簡體字亂造’ 등 ‘三難’現象에 빠졌으며, 1986년 社會用字混亂現象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후 1988년 북경에서 열린 漢字問題學術討論會에서는 漢字簡化에 대한 신중론이 급격하게 대두하는 양상을 보이며, 漢字의 우월성을 거론될 만큼 漢字에 대한 再評價가 이루어졌다.⁵⁾

중국인 자신이 자국의 傳統文化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코 이루지 못한 채, 중국의 각 항목의 건설 사업을 30년 정체시켰으며⁶⁾, 역사의 큰 멩에를 입었다. 이는 또 中國傳統文化와 漢字는 파괴되기도 소멸되기도 힘 든 生命力이 강한 中國의 文化遺產임을 더욱 입증시켜 주었다. 중국은 世界的으로 극히 오래된 國家 중 하나로, 5천년의 文字記錄이 있는 歷史文化가 中斷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수천 년에 이르는 모든 중국문화, 즉 文物·藝術·哲學·發明·文學·飲食·居住 등 전반적인 중국문화에 대한 문자기록이 있듯이 漢字는 중국문화의 뿌리와 같은 존재이다. 文字가 없으면 歷史도 없다는 이치와 같이 유구한 漢字는 유구한 中國歷史를 뒷받침한다. 近代 많은 중국학자들은 商·夏 이전의 역사를 말살하였지만 甲

4) 이때 나온 구호가 ‘批林批孔’ 또는 ‘批孔揚秦’인데, 즉 孔子는 문자개혁에 반대하는 선조이며, 林彪는 문자개혁에 반대한 復古後退派이기 때문에 훌륭한 文字改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批林批孔’해야 한다. 그리고 秦始皇은 簡化된 문자인 篆書로 文字統一을 시킨 偉人이라고 했다.
5) 臺灣의 어문정책은 거시적으로는 中國大陸과 같다. 가장 큰 차이점은 簡化字와 繁體字, 漢語拼音方案과 注音符號 등을 들 수 있다.
6) 대륙의 문혁 기간 중 대만에서는 중국전통문화의 부흥을 외치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결국 中國 傳統文化 本質의 探索은 大陸보다는 臺灣에서 더욱 많이 보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骨文字의 발견으로 인해 중국 역사는 재구성되어 중국사를 논함에 있어 商代부터 논하게 되었으며 夏代史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다.

또한, 한자는 여러 민족으로 구서된 점에서도 물론, 방언이 심각하게 분열된 漢族에 있어서도 漢字는 民族統一과 團結을 조성시켜 주었다. 만일 形과 聲의 결합 문자가 아닌 단순히 낱소리 문자를 사용했었다면 중국은 아마도 지금의 유럽과 같이 여러 국가로 분열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漢字는 또 表意文字의 典型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文字중 하나로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唯一한 文字이기도 하며, 유일하게 表音文字와 나란히 대립되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文字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古代文明國家 가운데서 중국만이 유일하게 세계에서 가장 유구하고 찬란한 文化를 지니고 생존한 것은 漢字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도 있다. 그밖에, 漢字는 太古時代 이래 黃河流域의 人間과 自然環境關係를 배경으로 형성된 氏族社會가 民族國家社會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漢字에 반영시켰다. 결국, 漢字는 곧 倫理教育의 일환이며 중국의 民族精神이다. 中華民族의 찬란한 文化遺産이며, 중국의 유구한 歷史와 文化를 이룬 하나의 神話的인 存在인 것이다. 따라서 왜곡된 漢字觀에 대한 방책의 하나인 中國文字의 拼音化는, 倫理道德과 民族精神을 파괴하는 것이고, 中國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중국문화와 수천 년의 文化유산에 대한 포기다. 미국의 철학자인 威爾杜蘭은 漢字에 대하여

중국의 문화는 바로 중국문자의 상징이다. …… 이러한 서사체계는 곧 일종의 극히 고도지혜의 성취이다. …… 몇 백 개의 부수에 1,500개 현저한 부호를 加하므로 곧 온 세계의 사물·활동과 성질을 망라할 수 있고, 그것들의 완전한 형식아래에서 문학과 생활에서의 모든 사상을 대표할 수 있다. 17세기 독일의 철학자 겸 수학자인 萊布尼茲와 현대의 羅素는 모두 이러한 종류의 문자부호의 체계를 꿈꾸어 왔으며 이러한 체계는 구어 속에 독립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시간과 공간의 차별과 분기를 초월한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민족 가운데서 같은 사상을 나타내며 서로 이해하는 길을 걸을 수 있다. (中國的文化, 就是中國文字的象徵, …… 這種書寫的系統, 乃是一種極高度智慧的成就, …… 在幾百個部首加上一千五百個顯著的符號, 即可包羅整個世界的事物·活動和性質. 在它們完整的形式下, 它們可以代表在文學上和生活中的所有

思想. 十七世紀的萊布尼茲(德國哲學家及數學家)和現代的羅素都夢想有這麼一種文字符號的系統, 這種系統能獨立於口語中, 超越了國家·時間和空間的差異分歧. 因此, 能在不同的民族中, 表現相同的思想, 走上互相了解的途徑。)⁷⁾

고 했으며, 漢學의 권위자인 高本漢(Bernhard Karlgren)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다.

중국의 광대한 국토로서 통일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문자의 세력에 공(功)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 중국은 이러한 정교한 교통도구가 있기 때문에 북경의 신문은 광주(廣州)에서도 똑 같이 통달할 수 있으며 방언에서 분기된 장애를 받지 않고 千年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를 통해 옛 사람들과 친밀히 교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방에서는 이를 수 없는 부분이며 영국 사람은 그들의 300년 전의 서적을 알아보지 못한다. …… 중국 사람들이 만일 그들의 우월하고 아름다운 문자를 파괴한다면 곧 그들 문화의 진실한 기초의 파괴를 자행하는 것이다. (以中國之大, 能保持統一, 不能不歸功於中國文字之勢力. …… 中國有此精良的交通工具, 所以北平的報紙, 在廣州一樣可以通達, 而無礙於方言之分歧, 且千年不變, 可籍此以與故人親密交接, 這在西方是辦不到的, 英國人不可能看懂他們三百年前的書籍. …… 中國人如果毀棄他那優美的文字, 乃自行摧折他文化真實的基礎⁸⁾

漢字의 簡化 方針은 六書에 어근 나는 造字法이지만, 사실 광의적으로 볼 때, 漢字의 簡化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고, 일찍이 이미 시작된 오랜 문제이다. 약 4000-3500년 전에 완성되어 발전한 표의문자형태의 한자는, 字體의 일정한 발전을 계속해서 거듭하여 온 점에서 미루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漢字의 變遷은 곧 漢字 簡化過程이고 漢字의 歷史는 곧 漢字簡化의 歷史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漢字의 끊임없는 지속성은 거부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中國의 民族精神·文化遺產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文字란 音聲言語가 가지는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言語的 기호이며 언어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발전하면서도 각자의 독특한 특성

7) 中華文化復興委員會 등 편, 上揭書 238쪽-239쪽 재인용.

8) 中華文化復興委員會 등 편, 上揭書 12쪽 재인용.

을 갖는다. 1920년대 일어난 白話運動과 國語運動이 전에는 書面語와 口頭語는 거의 다른 言語體系로 이루어 왔다. 甲骨文字로 기록된 殷代의 말은 單音節 單字로 된 말이며 多音節 複合詞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金文經으로 전해오는 《尙書》에 몇 複合詞가 발견되어 春秋戰國이후로, 사회·경제·정치 등의 제도적인 변동과 학술의 발달로 인해 中國語 語彙發展을 가속화시켜 대량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낱말에는 雙音節化的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實詞인 명사·동사·형용사가 크게 증가되었다. 漢代에 이르러, 사회경제의 진보와 文化·學術의 발달, 이웃 少數民族과의 빈번한 접촉, 그리고 외국과의 교통이 발달됨에 따라 중국어 어휘에도 그에 상응하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魏晉 이후에는 書面語(單音節詞)와 口頭語 간의 차이가 점점 커져 宋代에서 清代에 이르러 중국어 어휘현상은 주로 산업생활과 학예를 반영하는 새로운 어휘가 크게 증가되었고 또 대량의 白話文學 作品에 응용되었는데, 雙音節詞가 현저하게 우세하였으며 三音節詞도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또한 北方의 거란·여진·몽고족과 합류로 많은 알타이계통의 말들이 중국어에 흡수되어 자의변화가 적은 漢字語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漢字는 모두 單音으로 이루어지며 중국어의 어휘 詞는 單音節 또는 二音節 또는 三音節 많아야 四音節로 이루어지며, 중국어는 또 간결하며, 말의 규칙인 語法 또한 간략하여 어떤 학자들은 중국어는 “문법이 없는 언어이다”라고도 하는데, 이는 극단적인 표현이다. 중국어에는 명사·동사의 어휘 변화·시제변화·語尾 변화 등 복잡한 形態變化가 없는 간단한 언어체계로 이루진다. 즉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고, 詞序(단어의 순서)와 虛詞(조사 등) 등등이 漢語語法構造의 주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한어학습에는 문형이 아주 중요하고, 문형과 용법에 맞추어 단어를 이어주는 방식이다. 지금 한자와 성조에 낯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외형상으로 보기에 중국어가 아주 어려운듯하나, 사실 중국어 규칙만 찾아낼 수 있고, 어휘만 익힌다면 손쉽게 중국어를 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형태변화가 없어 문법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어의 언어체계는 간결하지만, 일정한 말의 규칙이 존재한다. 王力은

외국인이 중국어를 배울 경우, 종종 어려운 점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단어의 순서를 잘 못 사용한다든지(“貓比狗小”라고 하지 않고, “貓小比狗”라고 하는 등), 허사를 잘못 사용한다든지(“他爲什麼不來呢”라고 하지 않고 “他爲什麼不來嗎”라고 하는 등), 수량사를 잘못 사용한다든지(“一棵樹”라고 하지 않고 “一個樹”라고 하는 등)와 같다.(外國人學習漢語, 常常遭遇一些困難. 例如詞序弄錯了(不說“貓比狗小”而說“貓小比狗”等), 虛詞用錯了(不說“他爲什麼不來呢”而說“他爲什麼不來嗎”), 單位名詞用錯了(不說“一棵樹”而說“一個樹”)⁹⁾

라고 하였고, 또한

언어는 도구이고 무기이며, 사람들은 그 것을 이용해서 서로 교제하고 사상을 교류하여 서로 이해하는 경지에 도달한다....천 만년이래로 한족 사람들은 중국어를 이용하여 서로 교제하고 사상을 교류했으며, 종래 중국어가 어떤 사용에 있어 부족한 곳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반대로 중국 사람들은 모두 한어, 즉 중국어는 일종의 풍부하고 엄밀하며 표현력이 매우 강한 언어라고 느낀다. (語言是工具·武器, 人們利用它來互相交際, 交流思想, 達到互相了解....千萬年來漢族人民利用它來互相交際, 交流思想, 從來沒有感覺到它有什麼不够用的地方; 正相反, 我們人人都感覺到漢語是一種豐富·嚴密·表現力很强的語言)¹⁰⁾

라고 했다. 중국어는 詞序나 虛詞 등 어법결구 형식이 있고, 양사가 풍부하고, 형식어가 풍부하다는 등 중국어만의 특징이 존재하며, 의사소통에 있어 부족함이 없다. 이와 같이 간결한 언어체계가 풍부한 표현력을 내포하는 점은 우수한 언어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王力은

병음문자는 가장 선진적인 문자이고 가장 쉬운 문자이다. 모택동 주석은 “문자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하에서 개혁하고 언어는 반드시 민중과 가까이해야 한다.”고 하고 또 “문자는 반드시 개혁하여 세계문자 공동의 병음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주석의 지시를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조건들을 창조하고 일찍이 병음문자를 실행해야 한다. (拼音文字是最先進的文字, 是最容易學的文字....毛主席說: “文字必須在一定條件下加以改革, 言語必須接近民

9) 《王力文集》, (第三卷 中國語法理論), 571쪽-572쪽 인용.

10) 上揭書, 572쪽 인용.

衆”；又說“文字必須改革，要走世界文字共同的拼音方向”。我們應當遵照毛主席的指示，積極創造條件，爭取早日實行拼音文字。¹¹⁾

고 했고, 또

장래에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단지 한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이 쓰는 병음문자는 모두 북경음을 따라 쓰게 된다. 언어가 통일되면 병음문자도 곧 통일된다. 지금 힘껏 보통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將來不論南北東西，只要是說漢語的人，每一個人寫下來的拼音文字都是依照北京音來拼寫的。語言統一了，拼音文字也就統一了。現在來大力推廣普通話，就是要達到這個目的。¹²⁾

라고 했다. 그는 병음문자 실행을 위해서도 보통화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병음문자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생략하더라도,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광활한 중국에 單一言語의 존재는 보다 현실적이지만, 표준어인 北京語 역시 方言의 하나이며, 方言은 역시 한 나라의 文化를 풍요롭게 살 지우며, 중국문화의 일부분임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표준어와 문자의 보급은 교육의 문제라고 본다. 高本漢의

중국어문은 세계에서 가장 고급적인 어문이며 중국문자는 가장 아름답고 합리적이고 학습이 비교적 쉽다. …… 중국문자는 가히 세계어로 삼을 수 있다. (中國語文爲世界上最高等的語文，中國文字是最優美的，合理的，比較容易學習的。…… 中國文字可作爲世界語。)¹³⁾

리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漢字는 학습할 때 글자와 개념을 동시에 배우기 때문에 글자와 개념을 따로 배워야 하는 낱소리글자와 비교할 경우, 처음에는 학습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학습 양에 따라 풍부한 語彙力을 吸收할 수 있어, 결과를 놓고 본다면 學習上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또한 漢字는 單語 形態化를 완전히

11) 上揭書, 728쪽 인용.

12) 上揭書, 730쪽 인용.

13) 中華文化復興委員會 등 편, 上揭書 11쪽 재인용.

실현함으로써 한눈에 개념을 파악하지만 낱소리문자는 다만 어음을 표기하기 때
문에 먼저 어음을 안 후 뜻을 파악하게 된다. 특히 表意文字인 漢字는 형태변화가
없는 중국어, 詞와 詞의 結合에 가장 잘 부합한다.

주어+부사+형용사

- ① 交通 很 不便.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1 2 3

주어 + 형용사

- ② 這條江 又長 又寬.
(이 강은 길이도 하고 넓기도 하다.)
1 2 4 3 6 5

주어+부사+동사+목적어

- ③ 他 現在 上 漢語 課.
(그는 지금 중국어 수업을 한다.)
1 2 4 5 3

- ④ 他 昨天 上 漢語 課 了.
(그는 어제 중국어 수업을 했다.)
1 2 4 5 3

주어+동사+사람(간접목적어)+사물(직접목적어)

- ⑤ 我 送 她 一朵花.
(나는 그녀에게 한 송이 꽃을 선사한다.)
1 3 4 5 2

⑥ 明天下雨, 我們就不去登山.

(내일 비가 오면, 우리는 곧 등산을 가지 않는다.)

1 3 2 1 2 5 4 3

이상의 예문에서 중국어는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며, ④ 번과 같이 과거완료형에는 ‘了’자를 붙이고, ② 번과 같이 양사를 즐겨 쓰며, ⑥ 번과 같이 “明天下雨.”는 “내일 비가 온다.”라는 뜻이지만, 뒤의 문장에 따라, 가상어가 될 수도 있다. 즉 중국어에서는 가상어를 나타내는 낱말을 쓰지 않아도 앞 뒤 문맥에 따라 가상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컨대, 漢字는 중국어와 아주 부합되는 문자이고, 漢字는 漢語와 함께 漢民族을 특징짓는 역할을 하고 있다. 多音節 膠着語인 韓國語에는 概念文字인 漢字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은, 漢字만을 바탕으로 음절문자를 만들려는 최초의 진지한 시도가 690년 新羅 신문왕 때 ‘이두’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두’는 후대로 오면서 오히려 위축되어 전적으로 漢文으로 충당되었으며, 결국 韓國語에 부합되는 문자인 《訓民正音》을 창제하기에 이르렀다. 日本 역시 多音節 膠着語로 일본어에 적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漢字를 單純化시켜 音節表記用으로 가타카나(片假名)와 히라가나(平假名)를 만들었다. 마치 한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한자가 중국어에 부합되지 않는 문자이라면, 수천 년 동안의 사용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밖에, 漢字의 宗主國인 중국대륙·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중국계 국가는 물론, 韓國·日本 등 中國文化의 영향을 받은 국가, 그리고 중국의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베트남 등 국가에 있어 言語生活은 직간접적으로 漢字語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漢字로 쓰면 그 의미가 완전히 같은 漢字語를 漢字圈 國家에서 통용되고 있다. 광활한 토지와 중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漢字를 다른 국가의 언어에 적용하여도 장애가 없다는 점에 대해 日本의 山本憲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영문은 영어로 해석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고 독문은 독어로 해석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데 歐美文字는 이러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한자는 곧 그 자형을 변별할 수 있어 영어 또는 독어의 표준음으로 그것을 읽어도 안 되는 바가 없다. 오늘날 일본 사람이 일본음으로 한자를 읽는데, 삼나무 ‘杉’을 ‘스키’라 읽고 꽃 ‘花’를 ‘하나’라 읽으며 풀 ‘草’를 ‘쿠사’라 읽는 것과 같다. 이러한 법칙에 따라 영국 사람은 태양 ‘日’을 ‘sun’이라 할 수 있고 달 ‘月’을 ‘moon’이라 할 수 있으며 꽃 ‘花’를 ‘flower’, 나무 ‘木’을 ‘wood’라 할 수 있다. 文章을 씬에 있어, 비록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모두 본국의 음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교통의 편리를 증가하고 문명의 회전을 도우니 그 이익이 막대하다. 오늘날 중국 남북의 발음이 다르고 각각 고향말로 이야기한다면 곧 병어리와 귀머거리가 서로 막대고 있는 것과 같다. 만주와 조선의 말이 본래 달라도 여전히 서신으로 뜻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없다.(英文非解英語不能讀, 德文非解德語不能讀. 歐美文字, 無不然者. 漢字則但須能辨其形, 以英德俄之法音讀之, 無不可也. 今日本人以日本音讀之, 如杉讀スキ, 花讀ハナ, 草讀クサ是也. 依此法, 英人可讀日曰sun, 月曰moon, 花曰flower, 木曰wood. 作為文章, 雖不解英語者, 皆可讀以本國之音而明其意; 增交通之便, 助文明之運, 利莫大焉. 今中國南北, 發音不同, 各據鄉談, 將如瘖聾之相對; 滿洲朝鮮, 則言語本異, 然無不可以書翰通意者.)¹⁴⁾

결국, 漢字의 지속성은 中國語와의 불가분한 관계, 그리고 中國文化의 뿌리 같은 존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Ⅲ. 八思巴字에 대한 客觀的認識과 中國에서의 正統性

意符와 聲符로 이루어진 形聲字가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漢字의 자체적 문체와 語音의 分化 變遷에 의하여 聲符를 나타내는 偏旁의 音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확성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예전부터 漢字의 音을 注音하기 위한 시도가

14) 上掲書 56쪽 인용.

있었고, 近·現代에 이르러 漢字를 폐지하고 拼音文字 實行方案이 나오기도 했다. 元代에 音素型 文字인 「八思巴字」, 즉 파스파자가 중국에서 창제되어 官文, 元代 國字로 사용해 왔고, 이 文字는 중국 역대 최초의 表音文字이며 拼音方案이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과 漢字의 중국에서의 正統性 등 여러 배경에 의해, 파스파자의 역사적 흔적을 부인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중국 한 왕조의 문자로서 또는 拼音方案으로서의 최소한 인정 역시 八思巴字의 중국에서의 正統性問題에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역사학자 비트포겔은 중국제국의 역사를 전형적 中國王朝(秦·漢·南朝·隋·唐·宋·明)와 征服王朝(北朝·遼·金·元·淸)로 크게 구분하였다.¹⁵⁾ 그러나 중국을 지배한 정복왕조, 즉 異民族은 단 元·淸 뿐이며, 南宋(1127-1279)이 멸망한 후, 약 100년의 中國史는 元나라 歷史뿐이다. 따라서 元王朝를 부정할 수도 없고 지워버릴 수도 없다. 또한 世祖 忽必烈이 北京으로 遷都하여 국명을 元으로 고치고, 중국식 年號인 中統을 사용함에 따라 中統 元年(1260)을 분기점으로 그 이전은 몽골제국시대(1206-1260), 그 이후는 元帝國時代(1260-1368)로 구분할 수 있는데, 元帝國은 몽골제국시대의 遊牧的 性격을 中國的 征服國家體制로 변화시켰다. 皇帝位 역시 中國의 歷代 皇帝位를 이어받았는데, 쿠빌라이는 蒙古大汗과 中國의 皇帝의 兩面性을 지닌 후, 民族差別政策과 官僚登用에는 중국의 科擧制度 대신 門閥主義를 취하여, 民族과 階級의 모순 등 社會的 問題를 제기시켰으나, 제반 制度의 漢化가 시작되어 中國 官僚를 등용하였다.

異民族이란 새로운 政治統治下에 都市經濟의 發達과 外來文化生活의 影響은 옛 中國의 精神意識과 習慣이 동요되거나 해체되었으며, 文學 또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마자 옛 사상과 낡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民間文學이 크게 발전되어 正統文學을 대신하고 색다른 문학 장르를 이루었다. 文學史的 觀點에서 볼 때 元代 역시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華正書局編輯部の 《校訂本 中國文學發展史》의

그 당시의 고문·시·사가 비록 좋은 작품들이 있어도 대부분 전 시대의 것을

15) 申採湜, 《東洋史概論》, 465쪽 참조.

답습하여 당대와 송대의 여러 대가들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단지 이러한 새로 흥행한 곡과 가극들은 형식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모두 새로운 생명력과 창조정신을 지니고 있었다. 당대의 시단과 극단에 있어 새로운 예술적인 힘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곡은 원대문학의 주류라고 말할 수 있다.(當代的古文詩詞, 雖也有些好作品, 但是大都承襲前代, 跳不出唐宋諸大家的圈子. 唯有這些新起的曲子與歌劇, 無論形式與精神都具有新的生命, 面貌和創造精神, 在當代的詩壇與劇壇, 表現了新興的藝術力量. 因此, 我們可以說元曲是元代文學的主流.¹⁶⁾

라는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元帝國은 自國의 武功은 흥성하나, 「文治」는 결핍된 점이 많은 점을 깊이 느끼게 되었고, 또한 다양한 言語體系와 民族으로 이루어진 中國을 支配管理하기 위하여, 중국 각 지역과 異民族間에 통행될 수 있는 자국의 문자가 필요했다. 결국 「蒙古新字」를 창제하여 위구르 문자¹⁷⁾와 漢字를 대체하고, 아울러 「書同文」의 정책을 펼치려고 하였던 바, 소위 「모든 문자를 역사한다.(譯寫一切文字)」라는 여러 민족의 어음을 對譯할 수 있는 일종의 특수 표음문자를 창제하기에 이른다.¹⁸⁾ 元의 파스파문자는 遼의 契丹文字, 金의 女眞文字, 淸의 滿洲文字 등과 같이 이민족의 民族主義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파스파문자는, 元나라가 遼·金과 달리 中國王朝와 共存한 나라가 아닌 단일 왕조라는 점과 國字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파스파 문자의 完成年代는 확실하게 알 수 없고, 元 至元 6年(1269)에 정식으로 반포 되었다.¹⁹⁾ 쿠빌라이의 파스파문자 반포에 대한 詔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짐이 생각건대, 글자로 말을 기록하고 말로 일을 기록하는 것은 고금 이래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온 법칙이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북쪽에서 기초를 확립하여 세속에서 간결하고 옛 다운 것을 숭상하였으나, 미처 制作에 겨를을 내

16) 794쪽 인용.

17) 고대 몽고에는 자국의 문자가 없었으며, 기타 고대 다른 민족과 같이 刻木·結繩의 記事方法을 사용해서 문자를 대신하였다. 忽必烈의 命에 따라 만들어진 八思巴文字 이전에 成吉思汗時代에는 維吾爾文字를 사용하였다.

18) 元 世祖 쿠빌라이칸에서 順帝 帖木爾까지 蒙古語는 물론 漢語 譯音 八思巴 史料가 매우 풍부하며, 그밖에 梵語·藏語·佛經 등을 譯音한 것도 있다.

19) 北京大學 所藏 「京兆路重陽萬壽宮聖旨碑」上의 八思巴字 일부는 至元5年 12月로 考訂되어 있어, 파스파문자를 반포하기 이전 실험단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 못하여, 무릇 文字를 실행함에 있어 한자 해서 및 위구르문자를 사용본 조정의 말을 전달하였다. 요·금 및 먼 곳 여러 나라를 보면 모두 각각 문자가 있다. 오늘날문치(문턱에 의한 정치)가 성행함에도 字書에는 흠이 있으므로 一代의 제도에 있어 실로 미비하다. 고로 특별히 국사 파스파에게 명하여 「蒙古新字」를 창제하게 해서 모든 문자를 對譯함으로써, 말을 순조롭게 하여 일을 이루게 하기를 기약할 따름이다. (朕惟字以書言, 言以紀事, 此古今之通制. 我國家肇基朔方, 俗尚簡古, 未遑制作, 凡施用文字, 因用漢楷及畏吾字, 以達本朝之言. 考諸遼, 金以及遐方諸國, 例各有字, 今文治寢興, 而字書有關, 於一代制度, 實爲未備. 故特命國師八思巴創爲蒙古新字, 譯寫一切文字, 期於順言達事而已.²⁰⁾

여기에서 파스파문자는 「蒙古新字」라는 이름으로 반포되었다. 이 명칭이 명명되어진 배경을 보면, 파스파자가 반포될 때, 중국 南方에는 南宋이라는 중국왕조가 있었고 또 이전에는 위구르 문자를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蒙古라는 국명은 唐代 이래 漢語文獻에서는 각종 다른 글자로 몽고민족을 기재하고 있는 바, 즉 蒙兀室書·蒙瓦室書·篋劫子·梅古悉·謨葛失·毛割石·毛揭石·毛褐室書·萌古·萌古子·蒙國斯·蒙古斯·盲骨子·蒙古里·朦骨·盟古·忙豁勒 등으로 불리었다. 元代 이래 비로소 정식으로 「蒙古」라는 두 글자를 사용했다.²¹⁾ 때문에, 문자가 창제된 초기에는 「蒙古新字」라는 명칭을 부여했던 것이다. 2년 후에는, 다시 「蒙古字」로 개칭하였으며, 南宋이 멸망한 후, 元代文字라는 次元으로 확대되어, 「國字」로 개칭하였다. 「國字」라는 명칭은 《蒙古字韻》(1308) 劉更 序文의 「以國字寫漢文」과 「以國字寫國語」라는 말에서 미루어 볼 때, 元代 中葉 이전에 이미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²²⁾ 비록 民間에서는 漢字를 사용했지만, 파스파문자는 元代國字로 官廳文字의 역할을 100년 가까이 해왔다. 또한 파스파문자 보급을 위해 制度化했으며, 教科書가 편찬되었고, 碑刻·官印·花押·牌符·鈔·錢·權 등 文物에도 파스파자를 기록했다. 파스파 문자가 공포된 후 먼저 각 路에 「蒙古字學」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官方文書에도 八思巴字를 사용하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20) 朱濂 等, 《元史》卷202 列傳 第89 釋老(4518), 1158쪽 인용.

21) 楚勒特木, 〈“蒙古”一詞的由來〉, 內蒙古社會科學 2期, 1981.

22) 元代 말경에 「國字」라는 명칭이 나왔다고 하는 학자도 있는데, 1308년은 元代(1271-1368)에 있어서 末期가 아닌 初期 말 정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元史·世祖紀》三과 四에는 “至元 6년…각 路에 「蒙古字學」을 세운다. (至元六年…立諸路蒙古字學)”, “至元 7년…종묘제사의 축문에는 파스파문자를 사용하기를 명한다. (至元七年…敕宗廟祭祀祝文書以國字..)” 등 말이 있으며, 至元 8년에서 21년 까지 파스파 문자 보급규정을 강화시켜, 수도의 國子學에서도 파스파 문자를 전수케 하였고, 省部臺院의 奏目·行文과 中書의 符寶 그리고 省部臺의 여러 官印·書信에도 파스파 문자를 사용함을 규정했다. 심지어 각 처 역 또는 크고 작은 관공서에서도 파스파 문자를 사용하게 했고, 창제 당시의 「蒙古新字」를 「蒙古字」로 바꾸어 「新字의 사용을 금하는 등 강제적으로 일부 統治階級으로 하여금 기한 내 파스파 문자를 배우도록 명령하였다.²³⁾ 또한 파스파 문자를 배우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여 “生徒가 되기를 願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賦役을 면제하고”, 試驗合格者에게는 “헤아려서 官職을 授與한다” 등 政治的인 힘으로 漢人들을 유혹했다.²⁴⁾ 파스파자 碑刻은 陝西省·山東省·河北省·河南省·山西省·江蘇省 등 여러 지역에서 널리 전해졌으며, 파스파 문자 「交鈔」²⁵⁾를 전국적으로 성행시켜 국가제도로 정착시켰으며, 개인의 花押에도 파스파자를 사용했다. 중국은 물론, 월남·동남아 일대까지도 이러한 파스파 문자가 유입되었다.²⁶⁾

현존하고 있는 韻書形式의 《蒙古字韻》과 字書形式의 《事林廣記蒙古字百家姓》이 편찬되었고, 지금은 이미 실전한 《蒙古韻略》·《蒙古韻編》·《華夏同音》등 韻書도 편찬되어졌다. 崔世珍의 《四聲通解》(1517) 凡例》의

23) 羅常培·蔡美彪 《八思巴字與元代漢語》 10쪽-15쪽 재인용·참조.

24) 《元典章》 권31 《禮部四學校條》에는 “路에 따라 설립한 바의 교수 학교에 생도의 수를 충당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한 사람의 부역을 면한다. 上路에는 생도 38명 下路에는 25명을 각각 정한다. (隨路所設教授學, 有願充生徒者免一身差役. 上路額設生員三十八人; 下路二十五人)”, “몽고자를 2·3년 배운 후 생도 가운데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출제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생도의 정확함을 관찰한 다음 몽고자에 정통한 자는 선발되어 헤아려 벼슬을 수여 받는다. (二三年後習學生員選擇俊秀, 出策題試問, 觀其所對, 精通者爲中選, 約量授以官.)” 등 마령 있다.(羅常培·蔡美彪 前揭書 10쪽-15쪽 재인용·참조)

25) 北宋末에서 南宋에 걸쳐 지폐의 명칭은 交子·錢引·會子 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金나라에서는 交鈔라 하였다. (申採混, 《東洋史概論》, 26쪽 참조)

26) 《元史·世祖紀》 8에는 “현 월남에 위구르자 호랑이 牌符를 하사하였는데 國字인 八思巴字로 글을 썼다.(賜安南國畏吾字虎符, 以國字書之.)”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1860년 프랑스 사람 朴節(Pauthier)은 南洋 일대에서 「大元通寶錢」 하나를 얻었다고 한다.(羅常培·蔡美彪 前揭書, 26쪽 참조)

胡族 元나라가 中國에 들어와 주인이 되자, 蒙古字로써 漢字의 音을 對譯하고, 韻書를 만들어 國人을 가르쳤다. (胡元入主中國, 乃以國字譯漢字之音, 作韻書, 以教國人者也.)

라는 말에서 이들 운서들은 訓蒙書籍의 用途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元 刊本인 《事林廣記蒙古字百家姓》 머리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蒙古字體」의

몽고자 종류의 서적은 이전에는 학자들이 보지 못했는데 근래 이러한 풍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 영향을 미쳐 新學을 숭상하였다. …… 황제는 近古의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풍속은 다시 순박해지고 몽고의 학이 전문적인 학문으로 세워졌다. 처음 몽고학을 배워서 이 와 같이 편찬된 字書를 다시 익힐 수 있다면 가히 벼슬길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蒙古之書, 前乎學者之所未觀, 近風化自北而南, 新學尙之. …… 王化近古, 風俗還淳, 蒙古之學, 設爲專門. 初學能復熟此編, 亦可以爲入仕之捷徑云.)²⁷⁾

라는 말은 파스파자 서적은 이전의 科擧制度를 대신하여 벼슬길로 나갈 수 있는 도구서임을 알 수 있다. 《蒙古字韻》은 전통운서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간명하고 구체적이고 직선적인 편찬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모든 韻書에서 傳統韻書上の ‘韻(韻腹+韻尾+聲調)’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蒙古字韻》은 韻腹·韻尾를 聲調로부터 분리시켜, 介音·韻腹·韻尾를 포괄한 現代語音學의 韻母의 개념을 갖추고 있다. 또한 소리문자인 파스파자가 ‘聲母+韻母’ 혹은 ‘聲母+介音+主要母音+韻尾’ 혹은 ‘零聲母+韻母’ 등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어, 字音을 이루는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다. 또한 《蒙古字韻》은 元代實際讀音體系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元代漢語 적어도 官廳漢語 어음체계의 추정에 있어, 보다 실제적인 자료로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고, 近代官話研究에 가치를 갖는다.

日本 刊本 《事林廣記蒙古字百家姓》 머리 부분에는 “蒙古篆字一”이란 말이 있는데, 《蒙古字韻》의 篆字母表와 官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正字이외 또 篆書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元나라의 멸망과 함께 파스파자 또한 無用之物이 되

27) 《事林廣記蒙古字百家姓》, 元 順帝 6년 鄭氏積誠堂刊本.(羅常培·蔡美彪, 前掲書, 26쪽 참조)

었는데, 日本刊本 《事林廣記蒙古字百家姓·序》의

古篆 이외에, 세간에 보이는 것이 있다. 오늘날 蒙古가 篆刻한 바의 百家姓字를 얻었는데, 보이는 한 칸 한 칸이 모두 다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다. 신중한 새김은 古篆에 비금간다. 붓을 휘둘러서 이것을 배우니, 筆勢는 龍蛇를 그려내는 듯하다. (古篆以外, 世有所見. 今得蒙古所篆百家姓字, 每見一格, 皆世所未見者, 謹刻次于古篆. 揮毫學此, 向乎筆走龍蛇矣.)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옛 사람들은 파스파자를 周·秦의 篆字 혹은 더욱 오래된 古文으로 여겼다. 파스파자는 표음문자로서 부호에 지나지 않으므로, 마땅히 도화문자의 성질을 띤 중국의 篆書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파스파자는 순수한 表音文字와는 또 다른 성질의 것으로 그 字形에서 圖畫的인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어, 中國의 蟲書(鳥蟲書)와 아울러 藝術的인 효과를 다소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元代에 창제된 파스파자에 대한 당시 정부의 강력한 보급제도에 의해, 表音文字였던 파스파 문자는 결국 元代史의 한 획을 그었으며, 漢語는 낯선 표음문자와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國의 音韻學이나 文字學 또는 表音方案에 있어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이에 관한 언급이 별로 없다. 따라서 元代의 역사·문학 등을 인정하고, 또한 元帝國의 일정한 漢化制度 등 歷史的背景 하에서, 약 100년의 元代 國字로서의 역할과 보급, 그리고 元代 實際讀音에서의 가치 등 방면에서 살펴볼 때, 파스파자의 正統性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IV. 마치는 글

漢字의 지속성과 漢語·中國文化와 八思巴字에 대한 客觀的認識과 中國에서의 正統性에 대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다.

古代文明國家 중, 바비론문화·이집트문화·인도문화는 오늘날에는 이미 歷史의 遺跡이 되어 버렸으며, 오로지 中國文化만이 홀로 수 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이루어 生存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또한 中國歷史上 두 번 異民族의 統治를 받았지만 중국 전통문화는 지배를 받지 않았고, 五四運動(1920년대) 때에는, 천년 동안 사용해오던, 中華民族의 찬란한 文化遺産으로 간주되어온 漢字를 없애자는 漢字廢止論과 拼音文字 방안이 중국인 자신으로부터 거론되었다. 文化大革命(1966-1976) 때는 林彪 등은 漢語拼音教育을 과기하려고 하자, 「批林批孔」의 비난이 나왔다. 1988년 북경에서 열린 漢字問題學術討論會에서는 漢字簡化에 대한 신중론이 대두하면서 漢字의 우월성을 거론될 만큼 漢字에 대한 再評價가 이루어졌다. 두 차례에 걸친 傳統文化에 대한 打倒는 결국 歷史의 큰 멩에를 입었다. 이러한 운동은 中國傳統文化와 漢字는 파괴되기도 소멸되기도 힘 든 生命力이 강한 中國의 文化遺産임을 더욱 입증시켜 주었다. 중국은 世界的으로 극히 오래된 國家 중 하나로, 5천년의 文字記錄이 있는 歷史文化가 中斷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수 천년에 이르는 모든 중국 문화, 즉 文物·藝術·哲學·發明·文學·飲食·居住 등 전반적인 중국문화에 대한 문자기록이 있듯이 漢字는 중국문화의 뿌리와 같은 존재이고, 漢民族統一을 이루었으며, 漢字는 또 表意文字의 典型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文字중 하나로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唯一한 文字이기도 하며, 중국의 유구한 歷史와 文化를 이룬 하나의 神話的인 存在인 것이다. 그리고 漢字의 變遷은 곧 漢字簡化過程이고 漢字의 歷史는 곧 漢字簡化의 歷史라고 할 수 있다.

白話運動과 國語運動이전에는 중국의 書面語와 口頭語는 거의 다른 言語體系로 이루어져 왔다. 魏晉 이후에는 書面語(單音節詞)와 口頭語간의 차이가 점점 커져 宋代에서 清代에 이르러 중국어 어휘현상은 雙音節詞가 현저하게 우세하였으며 三音節詞도 있다. 중국어의 어휘 詞는 單音節 또는 二音節 또는 三音節 많아야 四音節로 이루어지며, 중국어는 간결하여, 말의 규칙인 “語法이 없는 언어이다”라고도 한다. 중국어에는 명사·동사의 어휘 변화·시제 변화·語尾 변화 등 복잡한 形態變化가 없는 간단한 언어체계로 이루어지며,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고, 詞序(단어의 순서)와 虛詞(조사 등) 등등이 漢語語法構造의 주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한어학습에는 문형이 아주 중요하고, 여러 문형과 용법 등의 규칙에 맞추어 단어를 이어주는 결구방식이라 할 수도 있다. 형태변화가 없어 문법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어의 언어체계는 간결하지만, 중국어만의 특징이 존재하고, 의사소통에 있어 부족함이 없다. 간결한 언어체계가 풍부한 표현력을 내포하는 점은 우수한 언어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王力은 모택동의 말을 인용하여 병음문자 방안 추진에 찬성하면서, 병음문자의 실행을 위해서도 보통화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병음문자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생략하더라도,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광활한 중국에 單一言語의 존재는 보다 현실적이지만, 표준어인 북경어 역시 방언의 하나이며, 방언은 한 나라의 문화를 풍요롭게 살 지우며, 방언 역시 중국문화의 일부분임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표준어와 문자의 보급은 교육의 문제라고 본다. 특히, 表意文字인 漢字와 중국어 어휘인 詞는 형태변화가 없는 중국어, 즉 詞와 詞의 結合이라는 문장에 잘 부합한다.

- ① 交通/很/不便.
- ② 這/條/江/又/長/又/寬.
- ③ 他/現在/上/漢語課.
- ④ 他/昨天/上/漢語課/了.
- ⑤ 我/送/她/一/朵/花.
- ⑥ 明天/下/雨, 我們/就/不/去/登山.

이상의 예문에서 중국어는 여러 문형 규칙과 용법에 따라,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며, ④ 번과 같이 과거형에는 ‘了’자를 붙이고, ② 번과 같이 양사를 즐겨 쓰며, ⑥ 번과 같이 “明天下雨.”는 뒤의 문장에 따라, 가상어가 될 수도 있다. 多音節 膠着語인 韓國語와 日本語에는 概念文字인 漢字가 적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는 《訓民正音》, 일본은 가타카나(片假名)와 히라가나(平假名)를 만들었다. 즉 우리와 일본은 모두 자국 언어에 적합한 문자를 창제하듯이, 漢字가 중국어에 부합되지 않는 문자라면, 수 천년 동안의 사용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漢字의 지속성은 中國語와의 불가분한 관계, 그리고 漢字가 中國文化의 뿌리라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밖에, 元代에 音素型 文字인 「八思巴字」, 즉 파스파자가 중국에서 창제되어 官文 즉 「元代 國字」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이며, 중국 역대 최초의 表音文字이며 拼音方案이다. 그러나 파스파자의 歷史的 흔적을 부인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중국 한 王朝의 文字로서 또는 拼音方案으로서의 最少한 認定 역시 八思巴字의 中國에서의 正統性問題에 있다고 생각한다.

南宋이 멸망한 후, 1271년에서 1368년까지 약 100년의 中國歷史는 中國王朝가 共存하지 않은 元나라의 歷史뿐이며, 元王朝를 부정할 수도 없고 지워버릴 수도 없다. 또한 世祖 쿠빌라이가 北京으로 遷都하여 國명을 元으로 고치고, 중국식의 年號인 中統을 사용함에 따라서 中統 元年(1260) 元帝國은 몽골제국시대의 遊牧적 성격을 中國的 征服國家體制로 변화시켰다. 쿠빌라이는 蒙古大汗과 中國的 皇帝의 兩面性을 지닌 후, 비록 철저한 民族差別政策과 官僚登用에는 중국의 科擧制度 대신 門閥主義를 취하여, 民族과 階級의 모순 등의 社會的 問題를 제기시켰으나, 제반 制度의 漢化가 시작되어 중국 官僚를 등용하였다. 또한, 異民族이란 새로운 政治統治下에 都市經濟의 發達과 外來文化生活의 影響은, 文學 또한 옛 사상과 낡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民間文學이 正統文學을 대신하고 색다른 문학 장르인 元曲을 출현시켰으며, 文學史的 觀點에서 볼 때 元曲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밖에, 元帝國은 「文治」를 보강하고, 다양한 言語體系와 民族으로 이루어진 中國을 支配管理하기 위하여, 중국 각 지역과 異民族間에 통행될 수 있는 자국의 문자가 필요했다. 결국 「蒙古新字」를 창제하여 위구르 문자와 漢字를 대체하고, 아울러 「書同文」의 정책을 펼치려고 하였던 바, 소위 「모든 문자를 역사한다.(譯寫一切文字)」라는 여러 민족의 어음을 對譯할 수 있는 일종의 특수 표음문자를 창제하기에 이른다. 元의 국자인 파스파문자는 遼의 契丹文字, 金의 女眞文字, 淸의 滿洲文字 등과 같이 異民族의 民族主義的 성격을 띤다. 그러나 파스파문자는 元나라가 中國王朝와 共存한 나라가 아닌 單一王朝에서의 國字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비록 民間에서는 漢字를 사용했지만, 파스파문자는 元代 國字로 官廳文字의 역할을 100년 가까이 해왔다. 또한 파스파문자 보급을 制度化했으며, 敎科書가 편찬되었고, 碑刻·官印·花押·牌符·鈔·錢·權 등 文物에도 파스파자를 기록하게 했

다. 파스파 문자가 공포된 후 먼저 각 路에 「蒙古字學」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官方文書에도 八思巴字를 사용하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파스파 문자 보급규정을 강화시켜, 수도의 國子學에서도 파스파 문자를 전수케 하였고, 省部臺院의 奏目·行文과 中書의 符寶 그리고 省部臺의 여러 官印·書信에도 파스파 문자를 사용함을 규정시켰다. 심지어 각 처 역 또는 크고 작은 관공서에서도 파스파 문자를 사용하게 했다. 파스파자 碑刻은 陝西省·山東省·河北省·河南省·山西省·江蘇省 등 여러 지역에서 널리 전해졌으며, 파스파자 「交鈔」를 전국적으로 성행시켜 국가제도로 정착시켰다. 또한 파스파 문자를 배우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였다. “生徒가 되기를 願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賦役을 면제하고”, 試驗合格者에게는 “헤아려서 官職을 授與한다” 등 政治的인 힘으로 漢人들을 유혹했다.

현재 《蒙古字韻》과 《事林廣記蒙古字百家姓》이 보존되어 있는데, 字音을 표기한 파스파문자는 傳統韻書上的 ‘韻(韻腹+韻尾+聲調)’의 개념에서 벗어나, 韻腹·韻尾를 聲調로부터 분리시켜, 介音·韻腹·韻尾를 포괄한 現代語音學的 韻母의 개념을 갖추고 있어, 字音의 音節을 이루는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다. 또한 《蒙古字韻》은 元代實際讀音體系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元代漢語 적어도 官廳漢語 어음체계의 추정에 있어, 보다 실제적인 자료와 어음근거로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고 近代官話研究에 가치를 갖는다. 元이후, 사람들은 파스파자를 周·秦의 篆字 혹은 더욱 오래된 古文으로 여겼는데, 파스파자는 표음문자로서 中國의 蟲書(鳥蟲書)와 아울러 藝術的인 효과를 다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元代에 창제된 파스파 문자에 대한 당시 정부의 강력한 보급제도에 의해, 表音文字였던 파스파 문자는 결국 元代史의 한 획을 그었으며, 漢語는 낯선 표음문자와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國의 音韻學은 물론 文字學 또는 表音方案에 있어서도,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이에 관한 언급이 별로 없다. 따라서 元代의 역사·문학 등을 인정하고, 또한 元帝國의 일정한 漢化制度 등 歷史의 背景 하에서, 약 100년의 元代 國字로서의 역할·보급 및 元代 實際讀音에서의 가치 등등에 따르면, 파스파자의 正統性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해야하

지 않을까 생각한다.

〈參考文獻〉

- 中華文化復興委員會 等 編, 《中國文字與中國文化論文集》, 臺北, 中華民國孔孟學會, 1985.
- 王力, 《王力文集》, (第三卷 中國語法理論), 山東, 山東教育出版社, 1985
- 吳浩坤·潘悠, 《中國甲骨文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5.
- 申採湜, 《東洋史概論》, 서울, 三英社, 1993.
- 明 宋濂 等, 《元史》, 臺北, 中華書局, 1997
- 姜信沆, 《四聲通解研究》, 서울, 新雅社, 1973년
- 中山大學 中文系, 《語言學概論》, 廣西, 廣西教育出版社, 1987.
- 권중성, 《문자학개요》,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7.
- 華正書局編輯部의 《校訂本 中國文學發展史》, 臺北, 華正書局, 1985.
- 홍인표, 《중국의 언어정책》, 서울, 고려원, 1994
- 森田良行 외 편저·이덕봉 외 역, 《日本語學의 理解》, 서울, 法文社, 1992.
- 高英根, 《북한의 말과 글》, 서울, 을유출판사, 1989.
- 照那斯圖·楊耐斯 編著, 《蒙古字韻校本》, 民族出版社, 1979.
- 羅常培·蔡美彪 合編, 《八思巴字與元代漢語》, 北京, 科學出版社, 1959.
- 照那斯圖, 〈八思巴字篆體字母研究〉, 《中國語文》 第4期, 1980.
- 楚勒特木, 〈“蒙古”一詞的由來〉, 《內蒙古社會科學》 2期, 1981.

〈中文提要〉

本文對於漢字的持續性以及八思巴字的正統性進行了一番研究, 其結果如下.

古代文明國家中的巴比倫·埃及·印度等國家的文化至今已成了歷史上的遺產, 唯有中國發揮了數千年的燦爛文化生存到今天. 中國曾受過兩次異民族的統治, 但中國傳統文化仍然沒受到影響, 五四運動(1920年代)期間, 中國一些知識分子却提起「漢字廢止論」以及「拼音文字方案」. 結果, 實踐了「漢字簡化方針」. 文革(1966-1976)期間, 林彪反對漢語拼音教育, 因而出現

了「批林批孔」的口號。文革以後，引起了「濫用繁體字」·「使用異體字」·「亂造簡體字」等「三難」現象。1988年在北京所舉辦的“漢字問題學術討論會”上，有一些學者對“漢字簡化”採取慎重的態度，並論及到漢字之優越性。在評價漢字上表現出很大的改進。兩次這種中國人本身對中國傳統文化的破壞，使中國在各方面落後了10年，還證明了中國文化和漢字具有着不易被消滅的一種生命力。數千年中國沒有停止過文字記錄的歷史文化。數千年的所有文化(文物·藝術·哲學·發明·文學·飲食·居住等)，它都有文字記錄。漢字還可助於民族統一與團結，也是倫理教育之一環，人間精神生活的基本條件。一句話，漢字是中國文化根的存在。

宋至清，漢語的雙音節詞很顯著，三音節詞也。存在。漢語的詞語有單音節詞·二音節詞·三音節詞，多了也是四音節詞。加上，漢語結構簡單之因，所以，有人說：漢語沒有語法。漢語沒有名詞·動詞的詞匯變化，時間變化，語尾變化等複雜的形態變化，漢語是一種詞與詞的結構，詞序和虛詞是漢語語法構造的主要手段。漢語雖是一種簡明的語言系統，但它在互相交際，交流思想上，從來沒有不足的地方，是一種表現力很強的語言。

- ① 交通/很/不便
- ② 這/條/江/又長/又寬
- ③ 他/現在/上/漢語課
- ④ 他/昨天/上/漢語課/了。
- ⑤ 我/送/她/一朵/花。
- ⑥ 明天/下/雨，我們/就/不/去/登山。

從以上的例句，我們可以知道漢語有句型和語法，是詞與詞的組合，像用了‘表達過去，愛用量詞，像⑥“明天下雨”這句話，雖沒有表達假想的詞語，可是，根據後面的句子，就成了“如果明天下雨”的意思了。總之，漢字是非常附合漢語的文字，不然，數千年來，漢族人民不可能利用它的。

此外，在中國會也創製過表音文字，就是元代的「八思巴字」，更重要的就是八思巴字以「官方文字」，即「元代國字」被推廣使用的事實。八思巴字是中國歷代最初的「表音文字」，也是最初的「拼音方案」，可是，如今，八思巴字連它的歷史痕迹也受到阻礙，本人認為八思巴字以中國一代王朝的文字或拼音方案受承認，這應跟八思巴字在中國的正統性問題有關。

南宋亡后，1271年到1368年約100年的中國歷史是一個不與中國王朝共同存在的時代，純粹是元帝國史，所以，不得不承認元王朝，加上，元世祖忽必烈遷都北京，國號改為元，用了中國年號中統。中統元年(1260)元帝國將蒙古帝國時代的遊牧體制改為中國的征服國家體制。忽必烈以蒙古大汗和中國皇帝的兩面性治國后，雖採取徹底的民族差別政策，在登用官僚上，以門閥主義代替了中國的科舉制度，可是，在一般制度上，已開始漢化了。在異民族的政治統治下，因受都市經濟發達，外來文化生活的影響，文學上也起了大變化。民間文學代替了正統文學，形成了在中國文學史上重要的文學主流元曲。元帝國為了加強「文治」，管理方言分岐而多民族的中國，所以制造了「譯寫一切文

字」的八思巴字。元朝的八思巴字雖與遼的契丹文字，金的女真文字，清的滿洲文字一樣，具有着民族主義的性格。可是，八思巴字是「一國一朝之國字」而含有意義。民間雖使用漢字，但八思巴字却以元代國字的角色，在官廳上使用了將近100年。並且，爲了普及八思巴字，以制度來規定使用八思巴字。還編了八思巴字教科書，現存的元代碑刻·官印·花押·牌符·鈔·錢·權等文物，也都使用了八思巴字。

各路設置了「蒙古字學」，規定各種官方文書都要使用八思巴字。甚至還規定「國子學」也要傳授八思巴字，省部臺院的奏目·行文和中書的符寶，以及省部臺的各種官印·書信也要使用八思巴字。八思巴字碑刻流傳於陝西省·山東省·河北省·河南省·山西省·江蘇省各地，全國通行八思巴字「交鈔」，並且以「有願充生徒者免一身差役」，「上路額設生員三十八人，下路二十五人」，「精通者爲中選，約量授以官」來誘惑漢人。

現存的八思巴字韻書有《蒙古字韻》，字書有《事林廣記蒙古字百家姓》，八思巴字拼音方式不是傳統韻書的「韻(韻腹+韻尾+聲調)」的概念，而將韻腹·韻尾與聲調分開，具備着現代語音學的「韻母」概念。因《蒙古字韻》反映了元代實際讀音系統，在近代官話研究上是一部很有價值的韻書。

總上所述，八思巴字因元政府的各種普及制度之下，表音文字的八思巴字結果在元代歷史上占有了重要部分，漢語却與表音文字結了個關係。既然承認元代史和元代文學，那在元代以「國字」使用了近百年之久的八思巴字，它在中國也是該具有正統性的。

關鍵詞： 元代，八思巴字，中國，漢字，漢語，中國語，中國傳統文化，中國文化，拼音文字，國字，元帝國，中國王朝，元曲，蒙古字學，蒙古字韻

KCS I